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金權主義와 强權主義

勝利는누구에게갈까

一

現代生活의 特徵은 金權主義와 强權主義의 鬪爭이다. 一國內에 잇서서도 그러하고, 國際間에도 그러하다. 金權主義는 民主主義를 標榜하고 强權主義는 全體主義를 내세우거니와 國內及 國際間에 잇서서 이두勢力이 儼然히 對立, 鬪爭하는것은 最近에 와서 一層 顯著하다. 그러면 이 金權主義對 强權主義 又는 民主主義對 全體主義의 將來는 어느곳의 勝利로歸할것인가.

二

今次의 歐洲大戰에서 보는바와 갓치 金權主義의 英佛은 强權主義의 獨逸에게 一敗塗地의 慘敗를 하고말엇다. 아직 戰局이 終結된것이 아니고 二段三段의 戰爭이 버러질것도 얼지만, 只今까지의 戰鬪經過로 보나 作戰, 兵器로 보나 獨逸에 勝利한것은 不動의 事實이다. 英國의 敗走는 顧慮를 보라. 佛軍의 처참佛에서 包圍되고도 本國軍이 包圍치 못하는 無弱을 보라. 今後 英佛의 勝利를 어찌미도라. 佛國은 獨逸의 總攻擊의미터 征服될날이 멀지안흘것이다. 英軍도 本土에 蟄伏하고잇는限 원사리 占領은안되겟지만 獨軍을 降伏시킬 機會는업슬것이다. 伊太利가 把하는날 佛國은 一個月을 못가서 獨伊兩軍에게 占領될것이다. 地中海上의 英佛艦隊도 相當한 損害를 볼지오, 西班利加의 去就니, 埃及은 伊太利에 占領될것이다. 英佛이 苦境에 陷하는날 米國의 參戰이 잇슬지모르나 米國은 極東에 關心을 계속하는 것인 國內의 政治理念으로 多大한 役割을 하지 못할것이다. 英米佛이 아무리 資源과 軍需品을 만히 가젓다 자랑하지만 短時日內에 軍需作戰을하면 어찌 勝利를 期하리오.

三

最近 十年來의 英佛及 獨伊兩國의 國內政策을 보면 前者는 安逸과 享樂을 主로하엿슴에 不拘하고 後者는 勤儉과 苦勞를 일삼엇다. 英佛 特히 佛國은 多數人民間에 內閣以來 一週四十二時間勞動制를 쓰고 婦女子는 美를 保護하기 爲하여 出産을忌避하여 人口는 年年히 減少하엿는데 獨伊特히 獨逸은 나치스出現以來 一日平均 十時間의 勞働을하고 國民에게 스포-츠軍事를 獎勵한結果 兩者의 軍備及生産力은 大戰直後와는 判異하게 顚倒되게되엇다. 即平和主義, 民主主義, 金權主義는 戰鬪主義, 全體主義, 强權主義에게 屈伏되게되엇다.

四

翻觀하건대 現代의 靑年들은 아즉도 金權主義의 迷夢에서 깨지 못하엿다. 黃金을崇拜하고, 남어지 黃金가진 사람까지 崇拜하는 風潮를 어찌할꼬나 어얼마나 寒心한일이랴. 黃金을 爲하여 義理와 節操를 저지고 良心과 信義를 속이는것만해도 기막힐 일이거든 況 黃金 가진 사람까지 崇拜하여 이것을 金權主義들이 하지안케 世界的으로 拜金主義를 取하는것이다. 拜金家들은 健全한 生活을 하는 精神으로 疑 그것이 어찌 어것이 오직 一靑年에게만 屬하랴.

急迫된時艱克服엔
國內體制强化緊要
久原氏, 首相의重大考慮를進言

【東京電話同盟】久原政友會總裁가 六日米內首相에 手交한時局打開의 進言要旨는 如左하다

現下의 急迫된 時局을 打開하는길은 政治體制를 刷新하여 참으로 擧國一致의 實을 거두는 外에업다는것은 多言을 要치 안는다. 宇世紀의 歷史를 가진 政黨에서 同志相圖하여 新政治體制確立에 努力하고잇슴은 時局의 容易치안흠을 認識하고 報國의 決意를 새롭게하려는것外에 아모것도 업다. 이제 新政治體制의 確立은 朝野를 不問하고 國民이 모두 一齊히 저야할 義務로서 輔弼의 重責에 잇는 內閣當局에서 特히 深甚한 考慮를 하여야할것은 더 말할것도 업다고 밋는다 생각컨대 東亞新秩序建設에 邁進하고잇는 我國으로서는 歐洲戰亂의 推移에伴한 世界變局에 臨하여 一, 速히 英米追隨方針을 更改하여 新外交方針을 確立할것 一, 支那事變解決을 促進하기爲하여 斷乎히 交戰權을 發動하여 歐洲交戰國의 支那駐屯을 撤退시키고 新事態에 對處하는 國防國家體制를 確立하여 一, 高度國防國家體制를 確立하여 兵器의 充實에 努力하여 例하면 航空機〇〇臺, 潛水艦〇〇隻, 戰車〇〇臺整備에即時着手할수잇도록 制時經濟其他 萬般의 國內體制를 整備할것이 絶對 必要하다고 밋는다 그러면 現狀으로서 果然 그完遂를 期할수잇슬지 疑心치안흘수업다 不肖參議의 末席을 더럽히고 責任이 가볍지안흠을 痛感한다 國의 時局을 打開하여 人心을緊張케하며 內外의 庶政을刷新하고 時艱을 克服하기爲하여 國民指導의 地位에잇는者 먼저 責任을 明確히하여 局面을 일신하여야 할것이다 이제 國內體制整備의 緊急이 새로이 要求되고 閣下의 重大考慮를 바라는바이다

昭和十五年六月六日
內閣參議 久原房之助
內閣總理大臣 米內光政閣下

佛戰時內閣陣容

松野鐵相도辭任?
久原派出身閣僚等進退注目

【東京電話同盟】久原總裁의 內閣參議辭任에따른 黨出身閣僚及 政務次官의 進退問題가 注目되는데 久原派로서는 陛下의 御信任을 바든 松野鐵相이 出席하여 ...

參議辭任理由
久原總裁談

湯淺前內府에
旭日桐花大綬章下賜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聖慮에서는 湯淺前內府의 多年宮中奉仕의功을 嘉尙하사 七日다음과가든 恩命이 게시옵섯다
正二位勳一等 湯淺 倉平
授旭日桐花大綬章

天皇陛下
九日東京御發輦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皇國의 皇謨 遠隔히 八紘에비나는 紀元二千六百年을慶賀하사 ...

敵死傷七百餘
我空軍의重慶空襲戰果

東荊河進擊部隊
蓮華寺에到達

當陽까지十八粁
漢水作戰最高潮

漢水西岸戰況

海陸航空部隊
四川省各地猛爆
梁山、遂寧飛行場等軍事施設粉碎

海軍漢水部隊
沙洋鎭에進出

馮玉祥、陳誠
急遽襄西前線에

麥類配給統制規則
個人의自由販賣는一切禁止
十日公布、十五日實施

麥收穫豫想
第一次發表

荊沙公路上의
三要衝을確保

漢北遡江部隊
沙洋鎭에到達

敵軍長孫震戰死

駐獨米大使歸國

人事·集會

市況 (七日)

獨佛軍激戰繼續

"祖國佛蘭西를救하라"
레이노首相演說要旨

內閣辭令 (七日附)

本庄總裁歸還

米國援助要望
쿠퍼英情報相談

獨空軍大擧
英東南海岸空襲

米國軍用機
英佛에供給

白耳義外相
英國과連絡

伊船舶을徵發

王揖唐氏就任
日支經濟에好影響
賀屋北支開發總裁談

神經痛 류-마치가 全快합니다
七年間이나 알튼 神經痛을 고친 저의全快體驗談
靜岡縣 須藤〇江氏談

膝과 肘 손목이 아픈 關節 류-마치스가
最後에겨우救援을바덧습니다
남의勸한家傳藥의덕으로
群馬縣 小林〇次郎氏談

손마디의 異常하게 붓것이 나엇습니다
千葉縣 樂代〇市氏談

얼골의 아픈것이 나은기쁨
三〇〇助氏談

慢性神經痛의 腰와 股의 아픈것이
黑色의快便을본뒤短時日에 完全히快癒되엿습니다
神奈川縣 大川修〇氏談

胃腸과 身體가 대번에 健康하게

神經痛류-마치의 家傳의名藥劑
아푼것이速히업서저서놀라

東京市本鄕區 森川町一 豊山院藥房藥所

廣告

醸造量減少를慫慂
在庫米放穀도勸告
每月一日의現在高를徹底調査!
食糧配給에萬全圖謀

買出票制度 運用의補強策

식량배급에 만전을 도모하기로하여 조사시행하기로 되엇는데 대한 국민의각오라는 제로미 제도가 실시 그리하여 금후 매월일일의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 되면서 부터 내각처치로 되어잇는 ... 경성시내의 쌀 ... 미난은 정히 ... 완화되어 가 ... 고잇서 지금만 ... 그날먹을식량에 대해서 ...

京城府廳計

師團報導部長 田上少將講演

大陸의防疫陣强化
日滿支·朝鮮臺灣을聯結
情報交換·檢疫方法의統一을中心으로協議

【東京電話同盟】신대륙의보호와 환과경의방법의통일을 중심으로 만주, 지나, 조선, 대만 아울러최근에 현저히증가한 일만지 협의하기로되엇다 (日滿支)의여객왕래에따라대륙의 예방국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역병(疫病)이 내지에까지 만연 무선전신으로 연락하여 발생상 될 증조가보엿스므로 이에대한 황을서로 보고하여 방역진을강 방역책에대하여 후생성(厚生省) 화하려는것이다 그리고도한일본 예방국에서는 오는이십일과 이 는지난오월말까지 이미오백명에 십일일이틀동안외무성, 육군성해 달하여 소화십년부터 동십사년 군성, 척무성, 철도성과 흥아원 까지의평균환자수 일백사십륙명 대만사무국, 조선총독부, 대만총 의삼배이상에 달하엿다 금년에 독부등의 판계관들과가치 협의 내지에 천연두가 성하엿던것은 회를 후생성에서열고 대류파내 조선에발생한 천연두에 관하여 지에전염병이발생한때의 경보교 현지에서 보고가 느젓기때문에 만주, 지나, 조선, 대만의 각지 내지에서 그대책을세우는데늦첫 에서는 방역방법이 통일되어잇 기때문이엇다 그리하여 장래에 지못하엿기때문에 병균이전염한 례가잇스므로 검역의기준도 확 정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이협 의회에대하여 근일중에 일만지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방법 의구체적협의에 들어갈예정이다

朴景嬉孃獨唱 九日陸軍病院에서

여류성악가 박경희(朴景嬉)씨 는 구일오후한시부터 용산육군 병원안 애국관에서 전상병을위 하여 위안독창을할터이다 반주 는 정구양사(井口洋子)씨라한다

重慶의防空施設
現代的으로제법完備
七日、京城某處에到着한情報

【某處着情報】요즘 일본해군비 행기가 연속하여 중경(重慶)의 상공으로 덮처가서 대폭격을하 여 장개석정부와 중경시민의간 담을 놀래게하고잇는데 최근에 경성모처에 들어온 중경지방의 방공시설(防空施設)에대한 정보 를도르면 폐설비를하고잇는것을 알수잇다 중경시내에는 여기저기에 약 십수만명을 피란시킬 방공호 (防空壕)가잇다 그기리를합하 면 약삼리가량되는것이다 중 경시의 높은곳에는 방공호(防 空壕)열개를 달아두고서 공 습경보를 하기전에 이것으로 서 미리 알리게 된다 처음 한개를 올리면 공습될 모양 이것을 알리는것이오 두개를 올리게 될때에는 적국비행기 가 접근하엿다는것을 알리게 되는것이다 이때에 비로소공 습경보의 「싸이렌」을 울린다 말하자면 공습경보를 눈에보 이게하는것과 귀에 듯게하는 것 두가지로써 하는것이다 그리고 신문사에도 방공호 를 만드러두고 삼백오십명이 안즐의자(椅子)를 노아두엇스 며 그안은 노피 여섯자 넓 이네자로된것이어서 객차가놓 일수잇슬만큼으로되엇다 그 안에는 람프는잇고 『라이프라 이트』도 잇고 전화와번역하 는곳도잇다 또그여페 따로이 백명을수용할수잇는 방공호도 만드러잇다 그래서 아모 리 일본비행기의 폭격을 밧드라 도 그방공호안에서 신문을만 드러낸다는것이다

廣浦물을끄러서
宣德水組新設을計畫
定平朱喆氏等總督府에陳情

함남정평군선덕면(定平郡宣德 面)에서는 증미국책에 순응하여 면내평지대일천여정보에 광포(廣 浦)물을 끄러 수리조합을 설립 하고저 기성회를 조직하고 주철(朱喆)씨 외든명을 대표로 선정 하야 최근 총독부농림국 에 수리조합 설립 허가를 진 정하엿다

雪嶽山探險團員募集

探險코-스 神興寺、五歲岩、雪嶽山、五色溫泉、洛山寺

出發 七月二十七日　歸還 八月二日(六泊七日間 車中二日間)
申請期限 七月十五日까지　申請場所 朝鮮日報社事業部
會費 五十六圓　募集人員 二十五名(滿員次第締切)

主催 朝鮮日報社

病院마다超滿員繁昌
重急患者入院難深刻
市民醫療機關의不足을痛歎

대학병원이하 부내각 병원이대 개 전부만원으로서 대학병원이 나 의전병원 세부란스 병원가 튼 설비가 우수한 병원은 미 리 입원하기를 신청하여 두지 안흐면 도저히 입원할수가업는 보기드문 현상이다 그래서 여간 급한환자라도대 학병원 기타 대규모의 병원에 는 입원하기 어려운 것은물론 사설병원에도 여간해서는 선듯 입원할도리가 업는 환자의수난 (受難)시대가 닥처왓다 이와가 치 병원마다 만원되는 원인은 대개무엇인가? 엇던듯기에는 전염병 기타유 행병이나 만연되어서 병원마다 차는것 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런것이아 니라 경성부내의 인구는 격증 하엿는데 병원은 그비례로 늘 지못한것과 또 경기가 조하서 어지간한병이면 의사의 지시유 무를 불문하고 입원하는 까닭 이 가장그주요한 원인이라는것 이다 그리고 또시골사는사람으 로 그지방병원에는 입원치안코 생활이 웬만한사람이면 경성으 로 올라오는까닭이다 그래서 불가불 입원하지안흐 면안될 중하고 급한환자는 도 리어 입원치료할도리가 업스므 로 대학병원가튼데서는 전에는 한사람만수용하던 독방병실에두 사람을 수용하고 두사람을 수 용하던 방에는 네사람씩을 수 용하여 실로 환자의 불편이 크게(?)를 위하여 실로가 만족할수업다하여 그대책을 강구 ...

人口增加의正比로
醫療機關擴充緊急
"現代患者는入院을自請한다"

金晟鎭博士談

이에대하여 외과의사 김성진(金晟鎭博士)의 말을들으면다음과가치 최근병원마다 대개만원되는것 은 사실이다 그러라고해서 잡병이 그만치더만히 유행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의료 기관의 증가가 정비례되지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하나이고또 하나는 돈이흔하기때문에 자택 치료할수잇는 환자도 걸핏하면 입원하는까닭인듯하다 전에는 의사가 입원을권고하엿지만 최근 에는 먼저환자로 병원의 유무 를 물어보고 척구기타입원할준 비를 하여가지고와서 진찰을바 더돈보고 입원하겟다고하 는 기현상이다 하여간인구가격 증된만치 병원은 늘지못하엿스 므로 이와가튼 문제가생기는것 인듯 대경성의 의료시설인비가 가장긴급한 문제인가한다

먼저實情을調査
擴充對策을考慮
總督府西龜衛生課長談

이에대하여 총독부서구(西龜)위생 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 면 무슨대책을 강구하여야될것 으로생각한다 기타각사립병원에 대하여는 입원환자 팽창으로해 서 환자의불편이잇게된다면 그 것은 그실정을 조사하여가지고 취체하는동시에 그대책을강구하 여 그경영자로하여금 적당한설 비를 확충강화하도록 할방침이 다 하여간 비상시 의료기관이 므로 일반환자들도 다소이점을 고려하여야할것이다

마분지公定價格 京畿道에서發表

경기도에서는 칠일 부고시로써 다음과 가치마분지(馬糞紙)의 도매가격과소매 가격을 공포하고동 일부터 실시하엿는 데도매판매가격은 ... 창고까지갓다주는운 ...

全鮮四醫專蹴球
八日부터三日間開催
本社後援으로延專球場에서

전조선안에 ... 네의 ... 세브란스의학전문(世醫專), 경성의학전문(京醫專), 대구의학전문(大醫專), 평양의학전문(平醫專) ... 본사후원으로 ... 연전구장에서 ...

電話通話激增
比前年一百二十餘萬增加
昨年統計

전조선에서 소화십사년도에 구회 호출(呼出)이 ... 소화십삼년도에 ...

東亞競技大會
母國의名譽를爲해
各國健兒奮戰
第三日

少婦放火獲送局

吉岡選手百米에優勝

矢田孃好記錄

比島庭球優勝

比島久三에快勝

日本軍이勝捷 對滿洲野球戰

中華軍이勝利 對滿洲庭球戰

排球日本大勝

中華軍이勝利 對滿洲卓球戰

日本軍이大勝 對滿洲蹴球戰

移出禁止品
託送拒絶命令
鐵道局、各驛에通達

鐵捕砂盜逮捕

學生籠球리그 法專、大學各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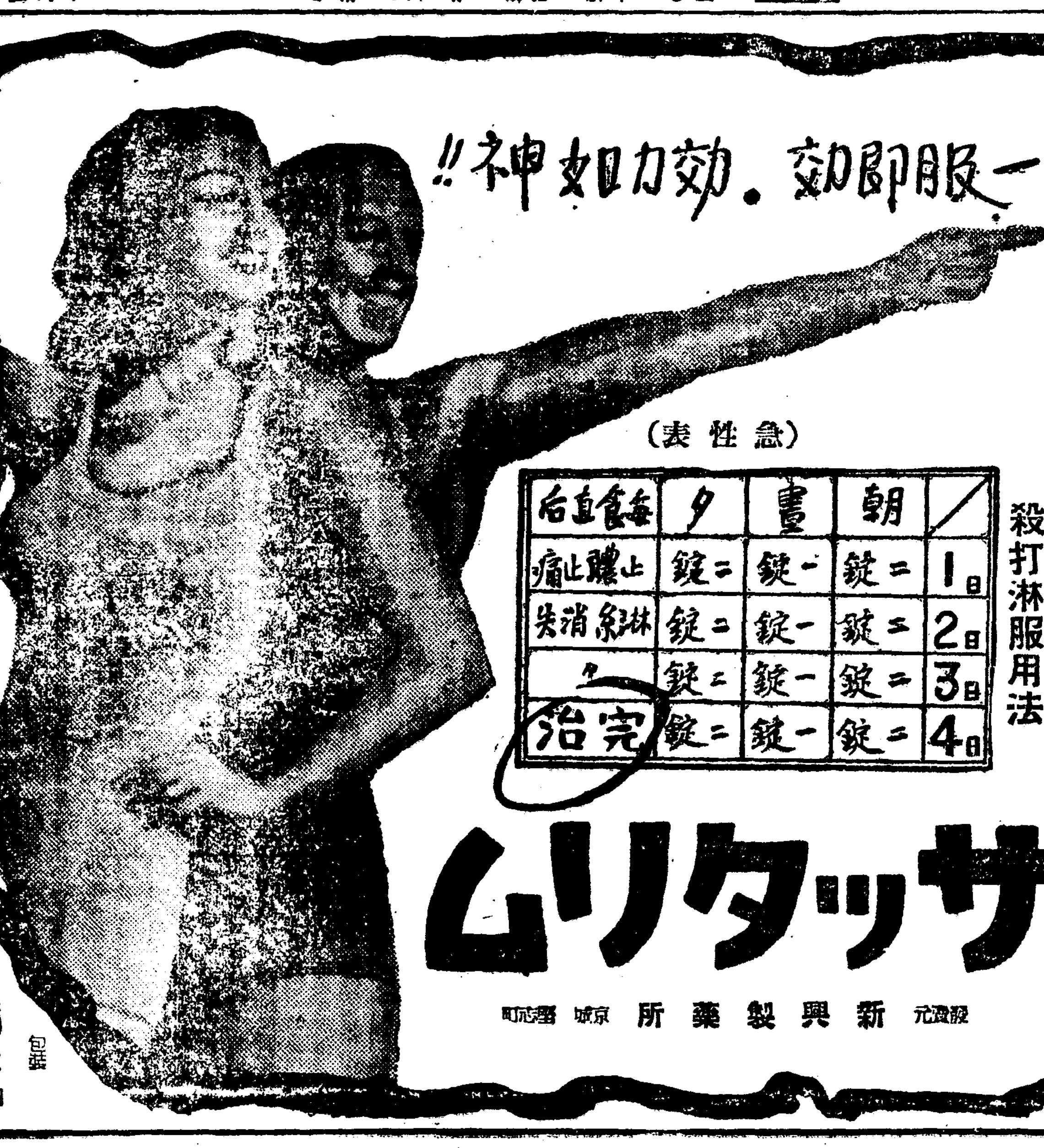
法專 41 (17 24 / 19 15) 32 豫科
大學 34 (14 20 / 13 15) 28 齒專
日本 7 (5 0 / 2 0) 0 滿洲

職業野球戰績

京春鐵道 "스피-드업" 從來보다卅分間短縮

今日의天氣 晴曇

六月八日(土曜日)陰五月三日 干支 壬午 日出 午前五時十一分



	朝	晝	夕	每食直后
1日	二錠	一錠	二錠	上膿止痛
2日	二錠	一錠	二錠	淋絲消失
3日	二錠	一錠	二錠	々
4日	二錠	一錠	二錠	完治

本報間島支社 電話八二七番

一步前進한教授法 洋裁를……自宅에서배우는

中野裁縫女史

洋藥漢藥 藥種商講義錄 朝鮮藥業硏究社 京城廣珠町一四

不老長壽強精 百補丸 百補丸會社 京城堅志町

脊髓病自療法 木本製藥所 明石市西新町

時計 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京城鍾路二丁目

衣類除虫剤

國防色羅紗專門 卸商 ミナト羅紗店 釜山府宝水町一ノ二四 電話特三七六八番 申込次第見本進呈

中部版

忠北邑面長 間島視察團

【淸州】 충북도당국에서는 [illegible] 내의 조선인개척민의 [illegible] 시찰케하여서 장내 그지도 [illegible] 개척민사무의 제일선에 당하고 잇는 읍면장을 계기에 하기위하여 시찰단을 파견키로 되엿는데 일행은 [illegible] 선발하고 만주간도성(間島省) [illegible] 하여 간도성 [illegible] 하엿다

보리를물에불려서 팔어먹는惡德商人

開城署서 嚴重處罰方針

【開城】 개성식량배급조합(開城食糧配給組合)에서는 보리대신 이상당한 여섯명은 후일 엄중케 ‼국수‼를 배급하게되엿다한는 해서 돌려보내고 남이지엿네명 기보하바어니와 부내 모곡물업은 검속업조중이다 자는 이런때 돈을남겨야겟다는 욕심에서 ‼두보리쌀‼을 삿자로 암취이해다가 이것을 물에 불려서 양을 늘려가지고 부정 매매를한다는 소문이 개성서에 까지 널려들어오게되엿다 이소문에 깜짝놀란 개성서에서는 이런 악덕상인은 단연코 엄벌주의로 저 부내 각정파출소에 명령하여 내사하라는 훈첩을 발하엿다

安東郡에서 事務硏究會

【安東】 경북안동군청에서는 사변발발이래 비상시국을 타개하고저 각기관을 총동원하여 목적수행에 노력하고저 지난일오전아홉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유(柳)군수이하 직원이 모혀서 각종사업에대하여 사무의 개신에 따한 사무연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 의안을 협의결정하엿다한다

一、農村에서의 紀元二千六百年 [illegible] 件

一、開村振興 [illegible] 의件

一、部落振興 [illegible] 의件

一、[illegible] 促進의件

一、昭和十五年度國民精神總動員運動方針에 關한件

桃色遊戱者 二十名을摘發

【開城】 홍등의 그림자와 또는 밀매음녀에 파무처 도색유희의 단꿈에 도취하여잇는 이신여명이 개성경찰의 비상경색에 걸려 붓들리엿다 비상시국에잇서서 향낙기분에 도취해사는 유한계급들을 엄중히경계할필요가 잇다고생각한 개성서 고등계에서는 지난七日새벽 세시부터 사법계와 공동전선을 려가지고 하야(河野)주임의 총지휘하에 부내 음식점 식당 기생집 여관등의 매음굴등을 일제히검색하여 새우는청한남녀이십명을 적발하엿다

開城府營「풀」 開場式

【開城】 개성부영의 「풀」은 오는십삼일 [illegible] 의 수속이 [illegible] 개장하는 [illegible] 부내전교학생을 총동원 [illegible] 우 장사의 주머니를 풍성케하는 [illegible]

새우젓갑시暴騰

原因은乾蝦輸出激增으로

【江華】 새우젓은 일반 가정에 업지못할 필요한 식료품으로서 종부 조선에 제공하고잇는 곳은 강화도의 근해어선들인데 금년의 새우젓 산출예상과 그가격을 보건데 작년보다 만주와 북지로 마른새우의 수출이 번창됨에따라 마른새우 장사의 주머니를 풍성케하게 하고잇거니와 새우도 예년에 비하면 그수량이 버적줄어들어서 잘못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젓장사를 피하고 확실하고 이익이만히남는 마른새우 장사로 전향하는이가만흔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의 새우젓은 품귀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가격에 잇서서도 상당히 빗사질 것을 예상케하고잇다 [illegible] 동시 심하여 [illegible] 일반에게 [illegible] 경향이 [illegible] 세무서에서는 [illegible] 설터이라한다

氷菓도公定價格

砂糖八分以上六双에一錢式 싸카링混合하면處罰

【仁川】 어름 과자도 공정가—「메」 이상한개에 일전으로 정하여 [illegible] 인천경제계에서는 어름과자의 공정가격을 일반업자에게 널리주지시켯는데 어름과자의 공정가격에 의하면 정미(正味) [illegible] 이상되는 가격을 [illegible] 번정한 가격으로 [illegible] 을 넘는것이래야 취체를바게 되엇다 만약설탕을팔군까지 안 너흐면 그것은동제가격무시로된 [illegible] 연처벌케 되엇다

『時』의記念日

仁川府의行事決定

【仁川】 오는십일은 『때』의기념경전(京畿)인천지청에서는 이날 일이므로 인천부에서는 황기이 부내 요소에다가 전기시계를거 천육백년을 마지하여 이날을한 러시간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 층더 의의잇도록하려고 기념행 엿다 부내 각시계점에서는 이 사를 연구중이든바 이즐그앞이 날에한하여시간만시계의 수리는 완정되엇다 그날은오전열시에 무료로 수선하여 주게되엇고 각 『싸이렌』의신호를마추어 전부 학교에서는 『때』의 기념을하기 민은 일제히궁성요배를하고 황 위하여 표어를모집하고 부에서 군용사에대하여 일분간묵도를밧 는 선전 『삐라』를배부하여 집 치고 정오의 『싸이렌』에는각사 회시간과 약속시간을 시키도록 원(員)에졸을불러어 바른정오 『때』기념을한층더 강화시키 의시각을 알리게되엇다 그리고 라한다

奇特한小學生

【仁川】 기특한학생도—인천부송 [illegible] 학비까지 곤란하여 학교를다녀 오는길에는 『미루구』등을 가지고 형제가날아다니며 그것을파러서는 형제학비를 충당하고어머니를 받도리 이웃사람들의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江華記者團後援의 面對抗競投大會

今日開幕、大盛況을豫想

【江華】 강화군체육협회주최와신 문기자단후원으로 제일회면대항 야구경기대회는 의의기픈 황기 이천육백년을 기념키위하여 명 구일 강화공립보통학교에서 거행되는바 참가단체가 [illegible] 이 흥미만흔 대회가되리라는바 참가단 체만도 도서면을 빼어노코는 전부가 참가하여 출장선수만도 삼배여명으로 공전의대성황을 기하고잇다

仁川압바다島嶼巡禮記(德積島篇)

洶洶한荒波속에 浮沈하는黃金夢

漁夫들의喜悲劇도가지가지

【仁川】 선미도와어깨를가치하고 잇는 어곳이경기도내에서 면째 되지안는 어장 덕적도(德積島)일것이다 이어장은 그위치로보아서 고도(孤島)이기때문에 문화의혜택을밧지못하여 어장으로서의 본색을 자슬만한것도업서서도 예부터 이곳의생산이란 해풍에 민어 새우가 수위를차지하고잇다

여기는 옛날부터 민어떼가끄리에끄리를이어서 칠월상순부터 팔월말까지는 한량업시 모여들 기때문에 연평도(延坪島)의조기 잡이배가 오월하순부터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두달동안은 전에보지못하던 인산인해를 이룬어 일대활황을 보이고잇다 물속에서 돌고잇는 고기떼를 따라 쫏아서 쫏아서 잡다에힌 동일단 고기잡이 배와 수천의어 부들이 뱃노래를불러가며 고기를 기다리고 잡을민어 [illegible]

本社仁川支局後援 全朝鮮弓術大會

四日盛況裡에終幕

【仁川】 기보한바와 가튼본사인천지국후원으로 지난일일부터 개최된 조선궁술대회는 그동안무려이 나 [illegible] 지난사일에 [illegible] 올내리게 되엿다 당일은회세시 경에 사우쟁강(?) [illegible] 회사로 우승 [illegible] 정한 강궁선 [illegible] 하엿는데 수상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一等 [illegible] ▲二等 申萬(?) [illegible] ▲三等 [illegible] ▲四等 [illegible] ▲五等 [illegible] ▲六等 [illegible] ▲七等 [illegible]

松葉燐寸會社

光州에工場設置

【全南支社發】 전남도에 만히생기는 송엽린촌(松葉燐寸)회사가 [illegible] 공장허가를 제주도의 [illegible] 도의 권대 [illegible] 씨와 구주방면 [illegible] 에잇는 송엽린촌회사 [illegible] 인조공장은 멀지안어 [illegible] 도당국으로서도 이를보 [illegible] 명하는동시에 허가를 신청하엿다 [illegible] 국을 방문하고 [illegible] 치기를보양으로 최초자본금 [illegible] 만원정도이며 전남도내에는 송이 [illegible] 때려지것을 [illegible] 아는 [illegible] 저오면 동회사에서 매수하 [illegible] 농촌부업도되리라한다 그리하여 재목(材木)자원으로하는 의미에 쓰지안코 [illegible]

淸州警防團에 四千圓寄附

【忠北支社發】 청주군 [illegible] 회사장 [illegible] 지난삼일 청주경찰서를 방문하고 청주경방단 단복구입비로사천원을기부하엿고 [illegible] 국부인회에 그회기금으로 [illegible] 을 기부하엿다

酒類密造者激增

【忠南支社發】 밤급 철미운동이 전국으로 고조되고잇는데 따라 조선주의 제조량이 감소되어가고 수당(酒糟)들이 비명을 올니고잇는 [illegible] 이용하여 대전세무서관내에는 밀주제조자가 점을 [illegible]

漁聯仁川管內漁獲高

五月中에三十萬圓

比前年同期數量減、金額增加

【仁川】 인천경기도어업조합연합회에 조사한바에의하면 지난오월중에 그회의관내에 잡은어획고는 삼십만사천삼백오십팔원이다 이를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수량에잇서서는 일만칠천관이 주럿스나 금액으로는 생선갑시빗차서 칠만오천원이나 증가를보이엇다 그런데 지난달의소비지를보면 종전에는 경성파인천이 만히먹게되엇는데 오월달에는 인천부내에이할 박게 소비되지안코 경성이삼활 지방이 도차지하엿다

安東大峴間道路 安東郡守視察

【安東】 경북안동에서 오래동안 공사에착수하엿든 대현(大峴)간산업도로는 [illegible] 구역이 [illegible] 주게되엿스므로 지난사일 [illegible] 군수는 이즈음 ... 시찰차로 출장하엿다는데 이도로가 완성되면 오지의(奧地)의임산 물등의집산을 작년보다 [illegible] 추십

建設役軍의犧牲

昨年中死傷六百二名

【咸南支社發】 작년중 공사에서 일어난 공장 상의 사고는 일백삼십오회 부상자는 사백삼십오명 사망은 [illegible] 이나되엿고 금년에도오월까지 육십 그리고 사망이삼명 부상 일곱인데 (?) [illegible] 사고도 로 은 [illegible] 아사 [illegible] 주요한것이다

鎭海第二小校 廿周年記念式

【鎭海】 경남진해제이소학교에서는 개교이래 만이십주년기념일에 [illegible]

軍馬資源確保코저 鳳山郡에百頭移植

【沙里院】 봉산군농산계에서는 [illegible] 도군마자원확보 [illegible]

沙里院面 一五 ▲黃州面 一五 ▲西鍾面 一五 ▲萬泉面 一七 ▲舍人面 一〇 ▲文井面 二〇 ▲計 一〇〇頭

全南貯蓄委員會서 各郡割當額決定

【全南支社發】 전남에 대하 금년 저축목표액은 이천일백만원으로 작년도의 일천육백만원에 비하면 오백만원이 증가되엿다 그리하여 전남도에서는 동목 저금액의 목적을달성하려고 금융기관에 채인저금계획을 망구하고 도저축장려위원회 [illegible] 시파업 도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저축에대하 새로운방법 [illegible] 각군별저축의할당을 하엿는데 다음과같다

▲光州三、〇〇〇 ▲光山五八〇 ▲木浦三、二〇〇 ▲潭陽[illegible] ▲谷城三一〇 ▲求禮四五〇 ▲光陽三〇〇 ▲麗水二、三五〇 ▲順天一、一〇〇 ▲高興八〇〇 ▲寶城七三〇 ▲和順四七〇 ▲長興六八〇 ▲康津七五〇 ▲海南八〇〇 ▲靈岩四六〇 ▲務安五〇〇 ▲羅州一、二七〇 ▲咸平四三〇 ▲靈光六〇〇 ▲長城四八〇 ▲莞島六五〇 ▲珍島四〇〇 ▲濟州島一、〇〇〇 ▲合計二一、〇〇〇

全州商議서 商工業者相談에 酬應

【全北支社發】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통제경제정책하의 전주상공계진흥을 도모하고 회의소안에 상공상담소를 설치하여 각상공업별조합을 조직시키고 동시에 공동사업 자금융통 협정가격 력행등 그운영방법을 지도하며 합리적 경영의 방책을 지도달하여오는결과 그성적이 매우양호하여 몰만한것이잇섯는데 금번명석(明石)이사의 신업과아울러 상담소의 진용을 일단정비해서 상공업자들의 편의를보아주기로하엿다는바 일반상공업자들의 상담에 응할사항은 다음과 가트므로 누구든지와서 상하며 수기바란다한다

▲相談에應할事項 ▲內外國商取引紹介斡旋 ▲開業及會社設立 ▲仕入販賣 ▲商店經營 ▲工場經營 ▲配給統制 ▲會社記帳 ▲調整 ▲廣告宣傳及商品作製 ▲店舖區劃 ▲工場設計 ▲金融統制 ▲關稅及貿易 ▲組合創立及運營 ▲特許實用新案及商標統制其他法規 ▲轉業軍需品下請並代用品其他

이것도孝인가?

아비의賭博資대려고 印章僞造한子息

犯人은江華署서取調中

【江華】 아비의 도박어 수비에 칠배사십육매백십사 자금을 대기위하여인 장위조를하다가 경찰에 [illegible] 에 잡히게되엿는데 [illegible] 강화군 양사면(兩寺面)의 이제그내용을알고보면 [illegible] 한상기(韓尙基)는 가마니 검사원들의 인장 [illegible] 위조하여 검사필증을 만들어 [illegible] 어더다가 [illegible] 을 여럿개나 위조하여 [illegible] 위소인장으로 검사원들을 [illegible] 이라고한다

本社永登浦支局主催

第七回 織湖蹴球大會

九日放鶴亭에서續開

龍虎相搏대大激戰을豫想

【永登浦】 본사영등포지국주최로 영등포에서 개최되엿는 제칠회 직호축구대회는 지난일일부터 [illegible] 회련에서 [illegible] 에 재개하는 제일회 [illegible] 축구대회(第七回織湖蹴球大會)제 [illegible] 작소축구부와 성남체육부 [illegible] 의 제일조전이잇는 [illegible] 용호상박(龍虎相搏)의 [illegible] 연기되엿는데 금기 [illegible] 예정대로 [illegible]

비온뒤의郊外 (春川)

[illegible] 에서 상나면이 넘우도와한가하 [illegible] 일오전아홉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기념식을성대히거행하엿다고한다

永	登	浦

第七回 織湖蹴球大會

▲時日 六月一、二、三 三日間

▲場所 永登浦放鶴臺運動場

▲參加金 各團體四圓

▲觀覽無料

◇主催 朝鮮日報社永登浦支局

꽃을꺽거모흘때……

—女性에게몃말슴—

位本 效果

꼿을꺽거모흘때 조흔숩한군데를골라서꺽거라하는말이 서양에잇습니다。우물을파도한우물을파라 는말이조선에도잇습니다。이와마찬가지로 병을고칠때——더구나 어려운부인병에는………참으로조흔약하나를골라서꾸준히고처가지안하면 안됩니다。

이에 폐사에서는 그동안동서양각병원에서 만히사용해오던 부인병성약ユートン을여러분께제공하여 여러분의고통을더소리도덜게할마음으로 널리광고하오니냉증·월경통·대하증·월경이상등부인병으로 고통하시는분은 누구나한번본제를시험해보십시요。조흔약으로 속히치료를안하면 내중에는자궁내막염·부속기염등으로악화하여수술을하거나 임신불능등으로 평생고생을하게되는수가만습니다。본제는맛도조코또물약으로되여가정에서도간단히먹을수잇습니다。(본제의효과에관하여는의사에게문의하시면더자세히아시게됩니다。)

適應症 월경통、월경불순、냉증、대하증 자궁내막염、산욕성유산、기타 부인병등

包裝 250瓦 475瓦 3785瓦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大連・米國加州・天津・臺北 (全國有名藥房販賣)

婦人病聖藥 ユウトン

WZ-40.1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近代人의

赤がら赤毛染

粉末一品을 물에녹이는것만으로곳染毛된다

●僅少한時間으로染毛가되므로…젊은분들의흉칙한赤毛、아이롱에꺼른머리는…輕便한ナゴン으로아름답게染毛해주십시요!

帝國大學化學實驗室에서 研究完成한白毛赤毛染

●從來의白毛染의製法은「亞硫酸」의酸化水素」를配給하여맨들던지 或은 오하구로式의것으로大別되는데 前者는잘 染色되는代身에 毛髮이부스러지고 中毒은 안된다할지라도 오래使用하는동안에 不知不識間에 內臟諸器官을 害치고 또 姬婦의死産流産의 原因도되며 子孫에까지 恐할諸種의弊害를 隨伴하여 醫學이 警告 影響을미치게하는것은 이미 此等의內臟諸器을하고잇습니다 後者는 代身 着色이不充分할 害칠念慮가업는 니다

白毛染の 方に警告

●ナゴン은 帝大化學實驗室에서 苦心研究하여 此等의缺點을 모조리 改良한 專門學者들의發明인만치 ★毛髮은 조금도 부서지지안코 內臟等을害치지안코 極히 손쉽게潤澤한 自然의黑髮로됩니다★ナゴン은毛髮에만 完全히 더녀지고 肌膚에무든것은 잘닥가지도록맨드럿습니다 아직ナゴン을使用치못한분은 安價品에끌리지말고 지금곳試驗해주십쇼 처음으로再生의기쁨을엇게되는것은全幽으로부터의 感謝狀이證明하고잇습니다

納言 ナゴン

製法特許專賣 衛生無害

●全國데파ー트・藥店에有함

長篇小說

青春茂盛 (73)

李泰俊 作 / 鄭玄雄 畫

과도 논우지까지 (二)

일수일이라 단 일분을 일분 밤바게 안되는것을 은심과치원은 청하게닷는것 갓다。

어떤에는 『링컨』이라는 미국 기선이 횡빈서떠난다는날이다。어날은 은심도 일직일어나 집을무렷다。

정선이 남매도 방학이되어고 향으로 나오질을 꾸렷다。

치원의 한턱으로 어느『스끼야끼』집에와 조반겸 점심을셈경 직먹고, 네사람 일행이되어 횡빈으로와다。

오후세시에 은심이가 떠나는 것을보고, 정선과 그의오빠는횡빈서 바로 하관(下關)차를 탈 작정이엇다。

그런데 부두에 나와보니 며국배『링컨』이 보이지안는다。알어보니 상해(上海)서 오는배인데 상해, 장기(長崎)사이에서 뚱뚱얼만나 하루 어상항도가는 정다는것이다。

할수없이 정선이남매는 어날 저녁차로 횡빈을 떠나고 은심과 치원, 두리만 남게되엇다。

정선이네 차를떠나보내고 정거장을 나서니 비가 부실부실 내리엇다。

은심과 치원은 택시를 타고 운전수가 안내하는대로 여관을 찾거로하엿다。

첫음간 여관은 만원이엇다。두째번 여관은 방이 하나밧게 하나뿐이엇다。

세째번여관도 방이 비인것은 남지 안헛다。

『어때요』

하고 치원은 택시를 내렷다。은심도 따라 내리엇다。

목욕을하고 나오니 하녀는두 사람의 자리를 모기장속에 가즈런히 깔아노핫다。그리고 따끈한 차를 떨어노코는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후에 나가버린다。

『고단하죠?』

『전 괜찬어요。선생님 저때에 고생 만히 허세요』

『고생은 내일부터죠 여긴 다。一서울을 수업는 가상하한대 해복입지니다』

『……』

고요한 비소리 속에우렁찬배고동소리가 가끔 울려온다。배고동소리가 끗나면 쏴 쏴 하는 파도소리도들리는것갓다。

두리는 잠작고 안젓다가 제로한시가넘는것을 보고는 자리를 서로모기장 양편으로 갈어 되도록 사이를 두고 누어버렷다。

불은 꺼스나 남은숨두거지는에서 비닷는 전등이 달처럼 후련히 비친다。

두리다 숨소리도내지안는다。

짤근하나 배스락거리는것도후슨 적지것처럼 조심하다。칠심키는 소리까지조심한다。조심하는만치 잠은 오지안는다。

『은심과 나와……』

치원은 진작부터 서울서독수와한방에서 자던 생각이난다。독수는 그날밤 두사람새에막어논 섬경을 집어내 팽개첫다。

그리고 한방에서 자며딴방에서 자듯 간격을 지킨것을섬경여배에다, 『최대 모욕의 하룻밤』이라고 써노앗다。

『여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허락하시는 기회가 아닌가?지금 서 배소리는 링컨호의입항인지도 모른다。내일 밤이면 은심는 대평양 우에 잇고 나혼자 동경에 남고…。아! 인생 일생이 얼마나되는 건데 이처럼 기구헌가! 천후의 기회다!

난 은심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세월이란게제 아모리 사람맘을 마비시킨다해두 내심중에 품에 뭇치기 전엔 은심이 여인이 여자에게 뛰재 안훔것을 난 맹서한다!』

치원은 벌떡 상반신을 일으켯다。

은심도 놀라는듯 얼른 고개를 도리켯스나 아모말도 업시 다시 이불선을 터밋까지 끌려올리고 고요해진다。

누운 얼굴은 더욱『스러거리스』를 통해 먼 불빛에 포근히 피여오르는 은심의 얼굴은 봉꼿 우에 한 서리가 끼친듯하다。

『은심?』

『……』

은심의 입은 그림처럼 열리지 안는다。

『………』

『………』

치원은 다시 누어버렷다。

『우연! 왜 하필 동경서 만나는건가?』

왜 하필 배가 올을 못 떠나는건가? 요전 배엔 은심이가 못 떠난게 아니라 안 떠난게 아닌가?

『우연도 나를위해서요 은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은심은 동무 때문에 오부바게 어딘는 신열때문에 안떠난터인 결코 아니다!』

치원은 다시이불을 떠밀어버리고 일어낫다。은심의 여프로왓다。

은심도 얼른 상반신을 일으킨다。치원은 명여새면안 은심의 손을 잡는다。바다쪽에서는 뚜ー하는 밤배고동소리가 또울려온다。

趣味娛樂

映畵人協會評議會

★正會員制度를 一新★

저난사일 오후두시부터 영화인협회(映畵人協會)에서는화대평의회를 개최하엿는바 출석평의원은 전부 열명으로서

(1) 황규연문대(黃叔袋)회부의건。

(2) 회원정리의건。

(3) 사무소 이전의건。

등 어상의 세가지 의제를 심중히 논의한결과 드디어 위문대는 한개에 이전정도도서 도합 이백개를하기로되어 임시지출로 어백원을 지출하기로 일치가결되엇스며 회원정리는

(A) 연출부(演出部)에 김태진(金兌鎭)어창근(李昌根)임유(林唯)등 삼씨의의원를 심사할것

(B) 연기부(演技部)의 정회원은 최소한도로 세개어상의 작품제작에 관계한자에한할것과

(C) 촬영부(撮影部)의 정회원도 연기부와가치 세개어상의 작품을 촬영한 사람에 한할것과

(D) 녹음(錄音)현상(現像)조명(照明)『스틸』장치(裝置)는 적어도 하나어상의 제작경험이 잇는 사람에 한할것

(F) 각본부(脚本部)음악부(音樂部)는 모두 한개어상의 제작에 관계한 사람으로서정회원으로한다

어상과 가튼 상세한 분류예를어가서까지 장지갈을 두고 드디어 구체적인 결성을 나리기까지 하엿다는바 사무소는 현재 조영(朝映)『빌』로부터 옮기어서 오일부터종로 외정목 하얏(漢陽)『빌』아에잇는 조선예흥사(朝鮮藝興社)안에다 두기로 결정하고동오후 네시반경에 산회하엿다한다

原作者와脚色者

먼저諒解를엇도록

▼…要새 영화회사에서도 그런일이엇서서 문제기 [illegible]하려다가 매칙 일이 잘되는다고그영화가 나오지 안코 [illegible]지 되어어야기는 잣가[illegible] 상해에 빠진일이 잇지만하여튼 극단이고 영화계고간에 남의 원작을 그원작자의 승낙업시 며구나 원작자에게는 아무 [illegible]고도업시 뒤통대통 각색이라고 해서 해먹는다는것가치 비열하고 비겁한일은 또업스리라 생각한다。

▼…대체 이러한 비열한 폐단이 무엇때문에 어디서 생기는것인지 모르겟스나원작자자신에게 아모런 통다도 업시서이놈끼러만 숙덕거리고 해먹어치운다는것은 아무에게 거물어도 어해를 [illegible] 어물수업는 [illegible] 작자에 대한 [illegible] 각하다。

▼…그야 먼 [illegible] 작자 [illegible]엿기도하다 그러나 [illegible]엿기때문에 너무도 [illegible] 여행을 ... 그냥 ... [illegible]

▼…요즘에 어떤 영화거나 연극거에서 하나의 유행이나가치 [illegible] 다루어 남의 원작을불고 나오는때에 잇서서 어떠한 방법의 색을 할수밧게업섯고 또그냥 무대에 올릴수밧게 업섯다는것은 둥 잉유가잇되는 소리다。

▼…며천리 며만리 아니라 다향에 잇다기로서니 어쪽에 호의만 잇다면야원작자와 각색자사이에 또는 래도를 갓는것도 현명한방법일지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금전이나 금액문제에 잇는것이 ... 南林

漫談野談大會

○…十日부터第一劇場에서

談友會主催

演士 申鼎言 申不出 [illegible]

어미『라디오』로서 널리알려저잇는 만담게(漫談界)의맹장 신정언(申鼎言) 신불출(申不出) [illegible]씨는 오는십일밤 오후일곱시반부터 사흘동안 시내종로사정목 [illegible]

演劇映畫

東劇林巨正傳 不得已延期

오는 구일밤부터 상연하려던 시내 동양극장(東洋劇場)의 홍벽초(洪碧初)선생작『임거정(林巨正)』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기 연기하는동시에 이에 대신하여 이운방(李雲芳)씨 작『바람의길』을 상연하게 되엇다는바『임거정』전도 방금 준비와교섭을하고 잇스므로 머지안허 무대에올려게 되리라한다。

千亞土氏와朴孃

태평『레코ー드』의 선전부장 천아토(千亞土)씨는 그짤딸막한 몸전에 어디 그런게 정력이 들어잇는지 매일 한시두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것이 보통。그래도 여전히 극단이나모도『레코ー드』회사의『빼라』와『포스터ー』를 척척 정하날이면 그런대 노키로 유명하다。그런데 씨가 아직 총각이것은 유명한 소문이나 씨도 머지안엇스면이 엿보운 총각생활을 면하게되엿다고 그의절친한친구인 백은선(白恩線)씨의말 어야기를 들으니 박(朴)누구라고ー。하여튼 씨에게도 내년 봄이오기전에 정작 먼저 그봄이 올모양。

憂鬱한李東胡氏

극단생활을 오래한이중에 그동안 벌써 총각을 면해도 여러번 면햇슬것한분으로 우선 조선무대(朝鮮舞臺)의 이동호(李東湖)씨를 들수잇스리라。

그는 숙엽(?)는 어엿한(?) 총각이다。그래서 어느 지꾸진 친구하나가 그분을 만나서『아 왜 저번에 그누구구허구 소문이 괜찬든니…』하니까 씨는 금방 얼굴빗을 달리하면서

『에어 여보 그런소리는 행여 마우 난 괜찬지만은 그어게 들으면 큰일나우』하엿다나 어쨋다나ー。아아 어문에게는 언제나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련구。날이 더워오니 남의일것지안케 생각이 미친다。

田澤二氏의재롱

지난번『송리의별』을방한군씨가 촬영할때다。저원명온천소에게서 날마다 들어백히어 임에만 시달리니까 고만 엽증이 낫든지 하루는 송도어느『빼ー』에 나타낫다。그리고 맥주『쪼끼』를 그냥 송두리채 들고서 쭉쭉 도리키도니 금방괴곤이 화는렷든지『나사못』어 풀렷든지 별명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고『탭땐스』를하고 코도키라ー를하고『백란의노래』를 부르고 ……그야말로『홀』안이 발칵뒤집히도록 야단법석을 한바탕 서원하고엇다。어것을 눈어 둥그래져지고서 그저 여페서를 멀거니 바라보고만 잇던 여급아가씨들이 하는말이, 가로되

『아이、전상은 인재보니까 아주 재롱둥이야』

하엿다나。어게 칭찬의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건 여급에게 물어봐야 아는수밧게 도리가 업것지만 하여튼 전택이씨는『재롱둥이』엇것만은 사실。

新講談 壯士의恨 ③

愛秋山

어한량은 몸이매우건장하고 나이는 서른서넛쯤으로 보이는데 갈과 전통을 둘너메고 우뚝 선는 모양이 누가보던지 보통이남보다는안 뵈이는 호걸한사람이엇다。

그런데 어 한량 역시 저금정룡이의 하더양을 심상히 보지안코 뭇슨 감격에 넘치는 얼골빛으로 빙그레 우스면서 정룡이의 모양을 바라보고 섯다가 여러사람들이 해저가고 용이가 괴기지개를 지고서 압서가며 정룡이에게 이르는 말을 다 듯고 정룡이의 뒤를 슬금슬금 따러서 정룡이의 집 압까지 가서는

『이에 정룡아 너 날 잡깐 보고 가거라……』

어말에 거룸을 멈추고 돌쳐 돌아서는 정룡이의 아프로 한량이 한걸음 다거서며

『이에 네이름이 정룡이라지 내게 아까부터 너를 보앗다만은 네힘이란지 또는 네말이란든지 또는 등벌한 당력이야말로 굉장하도라 그런데 네 나이 올해 몇살이되엿니……』

『나요 올해 열세살이요』

『그래 허ㅡ 장하다만은 세살이야 그럴일이다 그런데 네게 그만큼 힘이 세어보니 만일 내동을 비힘것 한번 잡어다리거나 떠다밀거나 해보어라 만일 내몸이 움석여지면네소원대로 햇줄께니 자어떠캣니 해보아라……』

정룡이는 그한량이 낫서투른 그동네에서 보지못하든 비상한사람일뿐 아니라 보기에 그러범상한 사람이 아니요 어디로보든지 점잔혼 양반인데다가 특별히몸집이 크고 얼골이 불그스름하고 눈의광채가 번쩍눈에 빗치여 멍하니 바라보고섯다가 어한량의 하는말에는 그러니 꿈이나서 누뤄거저 도모르게 실룩해지고 엇절울을 속에 내밀며

『뭐요 날더러 떠밀어보라구요 넘어저도 말마시우…』

하더니 허리끈을 다단하여라매고 왼팔 달려들어 두손으로 한량의 가슴을내여 밀엇다。

한량은 꺼떡업시 서잇슬뿐으로 빙그레 우스며

『네힘이 그것뿐이냐……』

『가만잇소 내다시할게……』

하며 뒤로 물러가서 두주먹으로 한량의 등을 힘것 내질럿다。

그러나 그 한량의몸은뜻텃도 업시 서잇서서 마치 굉장한 산덤이가치 틀튼하엿다。

정룡이는 그여히 한번그 한량을 너머트려보려고 두주먹을 단단히 쥐고서뎀벼들어 한량의 등을 밀엇다 가슴을 내질럿다 압뒤로왓다가다햇스나 그 한량은더욱더욱태산가치 무거운게떠 버티고 서잇서서 정룡이를 내려다보며 빙글빙글 우슬빠이엇다。

정룡이는몹이 가뻐서헐떡헐떡하며 그래도 그여히 한량의 몸을 한번 메어처보려고 뎀벼들엇스나 그 한량의 몸은 더욱더욱 무거워질뿐이엇다。

정룡이는 할수업시 고개를 폭 숙이고 우두커니서 잇섯다。그 한량은

『여에 정룡아 더 못해보겟니。그여히 한번 내몸을밀어보지 못하겟니……』

『아되겟소。아주 산덤이가 쓰는것이야……』

이말을 들은 정룡이는고개를 번쩍들고 그 한량을 처다보며

『무어요 공부를해요。우리 어버지는 공부해서 양반이면 물지 죽는다고 글베지 룸테 뭐 글자를 안는데』

『응 네가 힘은 나보다도 장사다。그러나 사람의 힘이라것을 한평이 업을뿐 아니라 힘만 장사래도 공부가 업스면 아모짝에도못말라는데요。

공부를 해야 쓰다는게무어요』

『오ㅡ 공부를 해서 양반이 되면 물지 죽는다구 허ㅡ 괴이치안흔말이지……』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한다는말이 무슨 말이요…』

『아니야 내게 말한 공부는 그양반되는 공부가 아니야 서 다른말이 어니라 너가치 힘이 장사라도 너마못한 나를 떠다밀지 못하고 잡어당기지도 못하는 것이 내힘이 그만큼 장사일뿐이오 무예의 공부가 업어서 그런것이란 말이다。응 알아듯겟니……』

『무어요。무예공부한요。그게 무엇하는것이요?』

『어 무예공부라것이 무엇이어요…』

『말하시우 내 잘 들을게요…』

『오 그래 무예공부라것은 다름개아니라 첫째 칼 쓰는법인데 어것은 잘공부를 하면 몸이 태산거치 무거워지고 둘째는 활쏘는 공부인데 활을잘쏘면 펄쩍이 든는해서 아무리 무겁고 큰틀한것이라도 한번내여져르거나 잡어다리면 너머져지 안는것이 업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말타는것 창쓰는법 모도잡십육기나 되는 무예를 공부해서 사람이힘을마음대로 쓰게만 도는 법을 배워야한다는말이다 알어도되니 어떠냐 한번 배워보겟니…』

정룡이는 눈을 끔벅끔벅하며 그한량의 말을 듯더니 그만 그아레 절석어디러서 절을 하고

『그럼 나도 공부를 해요…』

『오냐 너의아버지를 만나보고말을 해 보자…』

어리하여 그 한량은 용이와 만나보게되엿다。(게속)

"헐리웃드"의 老人部隊

영화의 서울『헐리웃드』의『스타ー』라고 하면 누구나 젊고 어여쁜 미남 미녀들을 연상하지만 사실 그속을 들고 보면 얇은 『헐리웃드』만큼 노인이 다시 되어나는것은 이세게에、또업스리만니까 이상한 일이다 좀 이야기는 신선한 맛이 업지만 늙은 패들 수어붓것스면

(1) 지금부터 삼십년전까지도『부로ー드·웨이』의『스타ー』로서『유ー쥬』선사의하를 뛰게하던『뭐니ー·밧사ー른』양은 최근에어르러서 는 안락의자에 선세를 지지 안흐면안될 예술다섯을된 노구를 이끌고서 다시『스크린』으로『데뷰ー』하엿다

(2) 금년일곱은두살된 동일인배우『아페드·싸쉐반』은 그의일층 돌독한 풍모때문에 바로 얼마전에『어ー럿허박사』란선작영화에출연하엿다

(3)『마리아·우스펜스카야』는 금년칠십을두살로서 뒤느께 여배우생활을 시작하엿다『헐리웃드』가아니면 어디서 어린둔은할머니가 어릉을 어들수잇스랴

(4)『테클』영화로서 어머의 숙히 잘알고잇는『재인·다ー웰』은『이생은 사설이든부터』란 영화에출연하는것은 퍽

阿娘『金玉均』讀者優待券(一人一枚)

▲時日……6月7·8·9·10 四日間 (晝夜) 晝…十二時半부터 夜…七時半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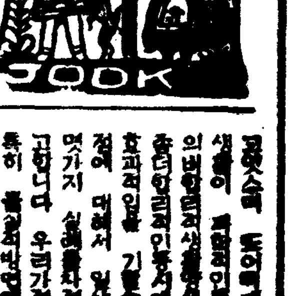
▲場所……府民館

▲劇本……林仙圭作『金玉均』六幕九場

▲注意……此券持參者에限하여 入場料 一圓을 七十錢으로割引함

『코ー러스·껄』의 習時間

(댄비아사의 [illegible]) 니다 그들은 우선 노래를배우기전에 몸을 꼿꼿이가지고 자세를 바로하는법을 배워야됩니다그러거위해서 그들은 매일가치 어렇게 머리 우에다 책을이고 그것이 떠러지지안토록 주의해서 겨름을 옴겨노흐며 표정을지으며 무대를 걸어다니는 연습을하는 것입니다



家庭時間 (八日 午後一時十五分) 家庭生活과科學 金善楨

講演 (八日 午後八時) 風俗과道德 鄭寅燮

伊瑞兩國에 一運河計畫

歌謠曲 (八日午後八時三○分)

八日 (土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의라디오 ▲午後零時五分 獨唱(레코ー드) ▲同零時三○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家庭生活과科學』金善楨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分 名作이야기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週間情報 ▲同七時三○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風俗道德』鄭寅燮 ▲同八時三○分 歌謠曲 ▲同八時五○分 唱劇調 ▲同九時一○ 라디오小說『上海서온女子』金健作 ▲同九時三○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時一○分 中等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合唱 ▲同一時 (東)傷病將士慰問 ▲同六時 (大)이야기 ▲同六時二五分 (京)文化講座 ▲同七時二○分 (城)物語 ▲同八時二○分 (東)物語 ▲同八時五○分 (大)淨瑠璃

九日 (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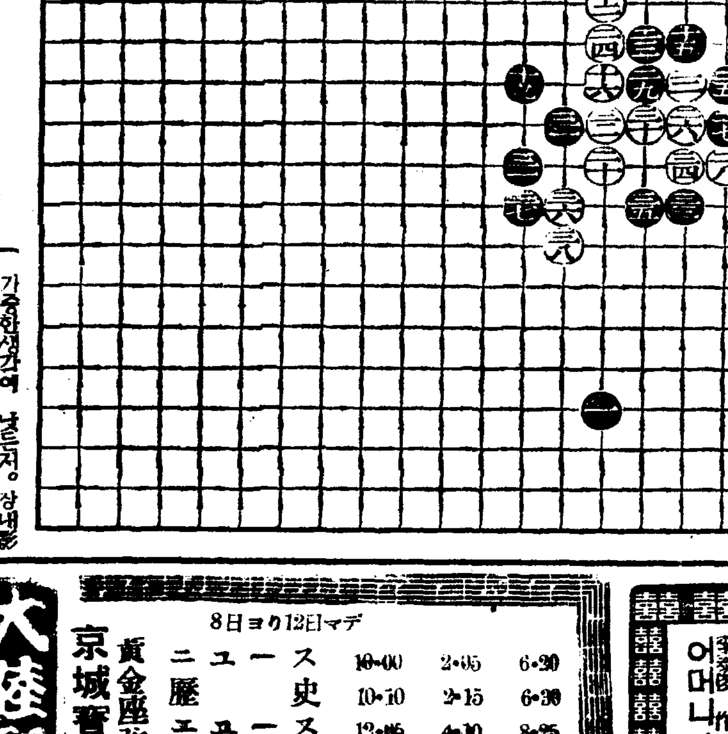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正午 (東)時報 오늘의라디오 ▲同一時 名曲鑑賞 ▲同四時 뉴ー스 ▲同七時二○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歌謠曲 ▲同九時三○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綠陰下新人熱戰譜

白『丙의八』禍因胚胎 困馬救出이難於登嶺

觀戰記 權景都

【3】 白 李鉉敏·黑 沈禑鎭



大陸劇場 6月7日ヨリ上映時間表 ス頑任ス頑 一き貴一き ユ若のユ若 二君涙二君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8日ヨリ12日マデ ニュース 歷史 エユース 翼の人々 入場料50セン均一

劇團高協 巡回日程 六月八日 十九日 二十一日 二十二日 二十三日

京劇 本町三

若草東寶 6月3日ヨリの上映時間表 男對男 ニュース 海軍爆擊隊

明治座 6月3日ヨリ9日マデ 結婚の價値 ニュース カツスル夫妻

新富座

一劇場 密林の復讐 東京ブルース 颱風

和信映畫 科學映畫 スポーツ映畫 極彩色

東洋劇場 林巨正傳

優美館 大平原 振袖若衆 若き日の凱歌

桃花劇場 太平洋の寶